

아빠의 사각형 하늘

남향초등학교

3학년 김세희

아빠의 하늘은 사각형이다. 10시간 동안 아빠만 볼 수 있는 사각형 하늘...

아빠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 이다. 많은 시간을 사각형의 버스 안에서 사각형 창문으로 세상을 본다.

손님들은 말한다. "수고 많으시네요" 아빠는 이 작은 한마디에 기분 좋은 웃음이 펼쳐진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끔 동전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사람,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빠의 얼굴에는 웃음보다는 큰 주름과 한숨이 생겨 버린다. 아빠는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마음 속 세상은 모나고 각진 사각형 일 것이다.

아빠는 사각형 세상에서 벗어날 때면 나와 손을 잡고 산책 하는 것을 좋아 한다. 예쁜 바닷가와 맑은 하늘이 펼쳐진 흰여울길을 아빠의 따뜻한 손과 목소리를 들으며 걷다보면 아빠의 웃음도 나의 웃음도 맑은 웃음이 된다. 아빠는 나의 맑은 웃음이 최고의 피로회복제 라고 하셨다.

그런데 요즘은 바닷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면 맑고 푸른 하늘대신 뿌연 하늘과 마주하는 날이 많다. 뉴스에 나오는 미세먼지들 때문이다. 아빠와의 행복한 산책시간이 줄어들까 걱정이 된다.

오늘도 아빠는 버스 안 사각형 창문으로 세상을 본다.

나는 기도한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아빠와 함께 즐겁게 산책하며, 아빠의 맑은 웃음이 끝나지 않기를...